• 직할교구 종무행정지도, 어떤 얘기 나왔나

인사고과, 공정성 객관성이 '관건'

지난 2월9일 직할교구종회에서 주지인사고과 제도 시행 방안이 공개된 후 스님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직할교구 사무처가 산하 사찰에 대한 종무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지난 3월17일 종료된 종무행정지도에서는 주지인사고과제 시행을 앞두고 현황조사와 모의평가가 진행됐다.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 시행에 대한 여론과 보완방안에 대해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직할교구의 주지인사고과제는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 계도…분담금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주지 맡지 않은 스님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앙종회의원 지현스님은 "옛날부터 주장해온 부분으로 환영한다"면서 "종단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스님은 "인사고과를 시행하기 전에 서울 불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공찰이 잘 운영돼야 한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요사찰에 대한 '사찰영향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선행과제라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 태연스님도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태연스님은 분담금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해선 주지인사고과제도와 분담금 조정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태연스님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최소한 사찰 예산의 10%는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인사고과제도와 관련 태연스님은 "종단에서 하는 일인만큼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만든 법으로 종단의 앞길을 열어 가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할교구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종스님(서울 삼성암 주지)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사전에 미리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면서 "포교방향이나 방법 등에 대해 주지스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선암스님(강화 적석사)도 "인사고과를 시행하는데 대찬성"이라고 밝혔다. 선암스님은 다만 실행하는데 있어 사찰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항목이 포교·교육·사회복지·불사로 구성돼 있는데, 도심 사찰과 시골 사찰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직할교구의 주지인사고과제도는 향후 수도권 포교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객관적인 주지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직할교구의 한 주지스님은 "지금까지 인사가 원근친소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히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이나 문중 등의 등에 따라 주지 인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이 주지 소임을 보면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라면서 "하지만 평가항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선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사고과제도 시행과 관련 주지 소임을 맡지 않은 스님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총무원은 지난 2월 교구종회와 최근의 종무행정지도를 통해 스님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3월2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구호 기금 2036만630원을 전달했다.

'아이티 구호기금' 2000여만원 전달

직지사, 아름다운 동행에…10억 8630만원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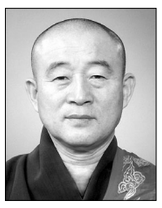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이 지난 3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구호 기금 2036만630원을 전달했다. 이날 직지사가 전달한 기금은 8교구 본·말사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직지사의 기금 전달로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10억8630만1623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성웅스님은 "교구 본·말사들 대중들의 정성을 모았다"면서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조용하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달식을 통해 의미있는 일은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모아 기금을 전달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유임'

제86차 정기종회서 인준



천태종 제15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정산스님〈사진〉이 유임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스님)는 지난 3월3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86차 정기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정산스님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4월 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산스님을 제15대 총무원장에 추천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3월31일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종의회의 임명 동의후 인사말에서 "사부대중과 하나 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감사원장 춘광스님도 유임됐다.

이성수 기자

동화사 산중총회 소집
22일, 주지후보 선출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허운스님)는 오는 22일 오후1시 경내 봉서루에서 신임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9교구 재적스님,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스님,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비구니 스님,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하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동화사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 등이다.

본사 주지 입후보자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3월25일 종

석재스님
괴산 개심사

현여스님
시흥 법륭사

본오스님
대구 용문사

효종스님
부산 천룡사

원상스님
칠곡 극락사

종각스님
청도 보륜사

해강스님
남원 실상사

지광스님
익산 숭림사

현장에서

낙동강의 어제와 오늘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3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갤러리에서 소규모의 사진전이 열렸다. 지율스님이 낙동강을 순례하며 기록한 5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지율스님은 지난 1년간 낙동강이 간직하고 있었던 과거 아름다운 강 주변의 모습과 함께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렌즈의 담았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는 보는 이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으로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전하고 있었다.

지율스님은 전시회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알렸다.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과 모든 생명들의 사라지고 있다는 알리는 동시에 개발을 명목으로 생명의 강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에서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강바닥이 파헤쳐져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진들을 보며 불자들의 입에서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

기자 역시 흙과 강이 회색 시멘트로 덮이고 있는 사진들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대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된다면 낙동강을 비롯한 강 유역의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부디 정부가 사진을 통해 지율스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모집공고

팔공산 동화사 승가대학에서는 불기 2554(2010)년 신·편입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치문반 00명, 사집반 0명, 사교반 0명

모집기간 불기2554년 **4월 1일 ~ 4월 11일**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사미증, 수계증명서, 행자교육필증 중 사본 1부
3. 은사스님 추천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증명사진 3매(사미의제, 만의 수한 사진)
5. 방부비 20만원, 수료증명서(편입생에 한함)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문 의 처 ☎강원 (053)985-1984, 종무소 (053)985-4404

불기 2554년 4월 3일

동화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남명 허운,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윤암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및 상용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조계종 어장이신 동주원명 큰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 뿐만 아니라 기초과정인 상용의식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어장스님이 집필하신 '승가의범'을 교재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_ 상용의식 (불공시식 1년 과정)
• 일 시 _ 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첫 강의 4/12 월요일**
• 장 소 _ **홍원사**
• 모집인원 _ 00명 • 수 강 료 _ 매학기당 80만원
• 연 락 처 _ **02)2658-3100** (홈페이지 : www.**hongwonsa.org**)